

오늘의 기사관

10월
▶제 28회 자연보호헌장선서 기념행사=오전 10시 광주시 북구 청소년수련관.
▶제 9회 적십자 노인건강생활체육 경연대회=오전 10시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다목적 강당.
▶제 2회 다산유물특별전 언론 공개 설명회=오후 2시 강진군청 소회의실.

제 2회 다산유물특별전 언론 공개 설명회

오후 2시 강진군청 소회의실

▶시·군 지역혁신협의회 의장단 회의=오후 2시 광주·전남발전연구원 회의실.
▶전국 생활체육 콘볼대회 개최식=오후 2시 광주시 북구 첨단 콘볼리장.
▶목포시 해안선 아간경관 조영디자인 개선사업 최종 보고회=오후 3시 목포시청 상황실.
▶호·영남 춤 페스티벌=10일(화) 오후 7시30분 광주문화회관 대극장.

▶조선대 사범대 음악교육과 정기연주회=11일(수) 오후 7시30분 광주문화회관 대극장.
▶남도소리 상설무대 '황송옥 가이금 병창 독주회'=11일(수) 오후 7시30분 광주문화회관 소극장.
▶어린이 뮤지컬 '공주 팔쥐'=11~13일 오전 10시20분, 11시30분, 오후 1시10분 (제)5·18기념재단 민주홀.
▶5인전=16일까지 광주 서구문화센터 갤러리.
▶광주대 캐릭터조형학과전=16일까지 무등갤러리 본관.
▶순수미술전 원우회=13일까지 조선대 미술관.
▶제 8회 남도 집·문 문화제=10일까지 광주시립민속박물관 기획전시실.
▶양단형 개인전=10일까지 무등갤러리 별관.
▶광주비엔날레 기념 'Paper Propose전'=29

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 본관.
▶광주비엔날레 기념 '손아유전'=12월 31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 본관 2층.
▶광주비엔날레 특별전 '미술 오케스트라'=25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 본관 1층.
▶타향속에 삶과예술=11월 14일까지 의재미술관.

역사속의 오늘

▶추사 김정희 선생 사망(1856)
▶독립운동가 이봉창, 일본 이치가야 형무소서 순국(1932)
▶사학자 육당 최남선 세상 떠남(1957)
▶이탈리아 패션 디자이너 파올로 구치 사망(1995)
▶영화 '슈퍼맨' 주인공 미국 배우 크리스토퍼 리브 사망(2004)
▶북한 조선노동당창건 60주년 기념행사(김일성 광장)(2005)

뉴스퀴즈

33. 한국인이 지구촌 외교 수장인 유엔 사무총장에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이 사람은 최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유엔 사무총장을 선출하기 위해 실시한 4차 예비 투표에서 5개 상임이사국을 포함해 안보리 이사국들로부터 압도적 지지를 얻었습니다. 유엔 안보리 선출과 총회 인준이라는 공식 선출 절차가 남아 있지만 이변이 없는 한 사무총장으로 선출될 것이 확실시됩니다. 현 외교통상부 장관인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①반기문 ②한승수 ③한명숙 ④정운찬

참여 방법

정답을 표시한 뒤 매주 일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주시면 2주마다 당첨자를 선정, 1위 당첨자 고급 진공청소기 1대, 2위 무등파크호텔 숙박권 1매를 보내드립니다. (연락전화번호 미표기시 추첨에서 제외)

보내실 곳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쿠키담당자 앞 우편번호 501-711

I love MY student



조영지

<품양초교 교사>

아이들과의 만남은 항상 새롭고 특별하다. 모든 것에 앞서는 아이, 뒤따르기도 벅찬 아이, 자신의 존재조차 알리지 않을 만큼 조용한 아이, 장난꾸러기 아이 등 자기만의 모습으로 다가오는 아이들... 모든 아이들을 다 기억 속에 잡아둘 수는 없지만 남다른 의미로 다가오는 아이가 있다.
지난해 입학식 날, 북적거리는 강당 뒤편에서 할머니의 손을 잡고 뒤에서 얼굴만 빼죽 내미는 아이가 눈에 띄었다.
또래보다 덩치는 커보이는 아이, 9살이란다. 성현이는 한 달이 다 지나도록 눈을 맞추지 않고, 처음 지정해 준 자리를 끝까지 고집하며 같은 자리에 앉곤 했다. 말이 없고,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고, 노래와 율동, 게임을 해도 무표정한 모습으로 창문 밖만 바라보는 아이를 보며 막막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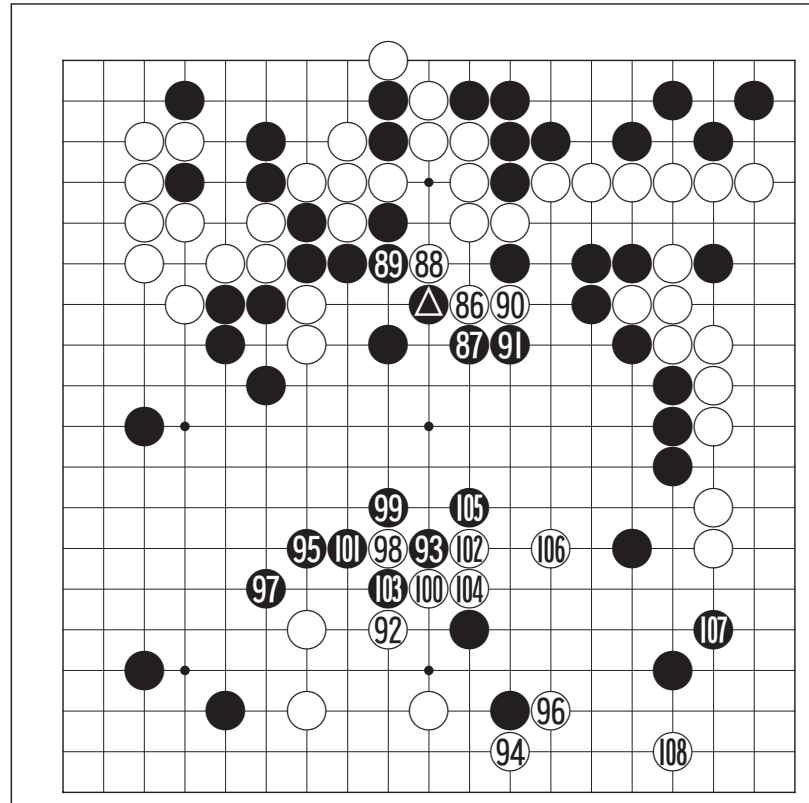
작은 천사들이 준 소중한 선물

음을 느꼈다. 어떻게 다가서야할까?
1주일이나 학도교육실에서 도우미 선생님이 하루 2~3시간씩 성현이를 만났다.
도우미 선생님과 성현이는 자연스레 짝꿍이 됐다. 성현이는 도우미 선생님이 계산할 때 돌아다니지 않다가도 잠시 자리라도 비우면 번개같이 돌아다니며 장난을 쳤다. 친구들의 연필 가져다 다른 곳 두기, 예쁘게 묶은 여자 친구들 머리 잡아당기기, 친구들 얼굴에 침 묻히기 등으로 교실은 난장판이 되곤 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아직 어린 친구들은 "선생님, 성현이를 다른 곳(반)으로 보내요." "이상해요. 싫어요."라는 말을 대수롭지 않게 했다.
이 아이들에게 성현이를 이해시키기는 힘들었으나 솔직히 다가가기로 했다. "애들아, 성현이가 지금 머리가 아파 치료중이거든. 너희도 아픈데 약을 먹지? 그런데 성현이가 나으려면 시간이 좀 걸린단다. 아픈데 친구들이 약을 안 먹어줘야 할까? 우리 반 친구들이 조금씩 참고 사이좋게 지내면 더 빨리 나을 수도 있단다."
"아파요? 아픈데 우리가 도와줘야 하는 거예요?"하면서 처음엔 이해 못 한다는 표정이더니 급방 서로 도우미를 하겠다고 나서기

작했다.
또래 친구들은 정말로 위대한 스승이다. 서로 모둠 활동을 할 때 절대 전부를 다 해주진 않는다. 그 아이가 적당히 할 수 있는 것을 남겨 두어 나머지를 꼭 스스로 하게 한다. 성현이는 서툴지만 신기하리만큼 친구들의 말을 잘 들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어른들은 안쓰럽다는 이유로 모든 것을 다 해줘서 성현이가 할 일을 없애고 있음을 알았으며, 꼬마 친구들한테 배워야 할 것이 많음을 또 알게 됐다.
성현이는 서서히 달라져갔다. 여름 방학 때 친구들이 성현이 집에 놀러갔다고, 답장은 받지 못했지만 편지도 쓰고 전화 통화도 했다고 서로 자랑을 했다.
교사와 친구들의 언어를 그대로 따라해 교사의 행동 수업을 하게 만든 아이, 맑고 순수함으로 거짓 없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 주어 미소짓던 성현이가 1학년울 끝으로 집 가까운 학교로 전학 가던 날, 서운한 때문에 성현이와 우리 반 아이들, 나 모두 눈물을 흘려야 했다.
해어집을 아쉬워하며 반 친구들이 성현이에게 들려준 사랑의 한마디, 충고 한마디, 맑고 솔직한 우리들이 갖고 있는 편지를 바로 잡아 주었다.
또래 아이들이 서로 부추겨주면서 가르치고 배워나가는 모습은 신선한 충격이었으며, 작은 천사들이 내게 안겨준 가장 소중한 선물이다.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0월 10일(음 8월 18일 壬申)

Table with 2 columns: Day (子, 丑, 寅, 卯, 辰, 巳, 午, 未, 申, 酉, 戌, 亥) and Fortune text for each day.



승부처는 중앙 제6보(86~108)
白 옥광석 <광주시교육청 A>
黑 서재중 <나주시청 A>
전보에서 옥광석 5단이 결정타를 날릴 호기를 놓치고 서재중 5단이 흑 2로 지키게 되어서는 다시 어울린 국면이다.
이제 초점은 흑의 중앙건설에 모아지고 있다. 실리는 상변에서 이득을 본 백이 앞서고 있으나 일단 커지기 시작하면 그 크기를 가능할 수 없을 정도로 위협적인 곳이 중앙이다.
백 88이 작지 않은 실수다. 이 수로

바둑소식
일본의 장수 9단이 최근 효고현 고베시에서 열린 제31기 명인전 도전 7번기 제3국에서 도전자 다카오신지 9단에게 208수 만에 백 불계승을 거두고 첫승을 신고했다.
장수 9단이 2승1패로 뒤진 상황에서 승부의 분수령이 될 제4국은 11, 12일 이틀간 일본 시즈오카현 아타미시에서 열린다.
현 본인방 타이틀 보유자인 다카오신지 9단이 지난 2003년 60기 본인방전에서 타이틀을 잃어 장수 9단을 물리치고 본인방을 따냈기 때문에 두 기사의 대결이 흥미를 끌고 있다. 대회 우승상은 3600만원(3억2천만원).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Table with 4 columns: English, Korean, Japanese, and Chinese language learning sections. Each column includes a title, a sample sentence, and a list of related words or phrases.